

2022년 06월 1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6편 1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20(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욥기 1장 1~5절(구약p.761)

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오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 말씀선포 / 온전하고 정직한 성도

어떤 사람도 고난을 반기는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고난은 피하고 싶고 나에게만은 고난이 임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신의 방법으로 고난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에 대하여 다른 모습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여 쫓겨 다니는 고난의 시간에서도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사도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 했으며, 또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소망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은 닥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

할 때 다윗과 또 사도바울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유익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로 삼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욥기는 우리에게 그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낸 욥의 온전하고 정직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욥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여기셨습니까?

1. 욥의 성품은 온전했습니다.

- 본문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학자들은 욥기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추정합니다. 이는 욥이 족장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 백세나 장수하였고, 그가 가족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으며, 재산의 규모를 가족의 수로 측정한 것과 특별히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가 족장시대처럼 “엘 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스 땅은 사해의 동남편, 에돔 땅의 북부지대로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그렇다면 욥은 이방인으로 이방인인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완벽한 신앙과 그의 삶에 높은 도덕률을 견지한 자라는 사실로 우리는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이름에 대하여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히브리어 “아예브”에서 파생된 뜻으로 볼 때는 “우는 자, 미움을 받는 자”란 뜻이 되고,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뜻으로 보면 “회개하는 자”란 뜻이 됩니다. 이런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시다.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탐”이란 말로 “무흠하다, 순전하다.”란 뜻이고, “정직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웨야살”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도덕적 법률에서도 정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복종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 줍니다.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참으로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훌륭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었습시다. 욥은 그와 관계된 가족이나 집안의 종 그리고 이웃들을 한결 같이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악행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러한 거짓과 악의를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시다.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욥에게 하나님은 경제적 풍요로 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양과 낙타와 같은 가축들이 있었으며 집안일을 돌보는 종들을 수없이 거느리며 살았습시다. 오늘 본문은 그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요 낙타가 삼천 마리요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잠언의 기자는 잠언 14장 11절에서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하시지만 정직한 사람들의 집은 반드시 흥하게 하십니다. 물론 물질적 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에 부요함은 하나님이 그의 정직함과 온전함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욥의 높은 도덕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온전한 성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사회 앞에서 더욱 온전하고 정직한 성품을 지닐 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2. 욥의 신앙은 온전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욥이 온전한 성품을 지녔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시다. 만에 하나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어와 있을지 모를 악한 일까지도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려 애썼습시다. 본문 4~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고 했습니다. 욥에게는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중 일곱 아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욥은 잔치 다음 날에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기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하나라도 부지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겼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셨으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랐고,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며 오직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에 있는 경외심을 보셨으며 그것을 통하여 욥을 의롭다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욥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으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 주어진 직분과 직책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의 백성이요, 천국일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나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온전하며, 강하여 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욥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저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데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의 삶 속에서 더욱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며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도록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 믿음으로 행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6(통493172)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 폐 회 / 주기도문